

윤종신, 유튜브 '탈곡기' 방송 ... "목표는 곡 탄생"

BTS 등 스타 위한 곡 만들어
"1인 방송은 일종의 직거래
창작자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이 노래는 무조건 뷔로 시작해야 해."
가수 겸 프로듀서 윤종신(49·사진)이 '월드 클래스' 방탄소년단을 위한 곡을 만든다. 그는 '방앗말' (방탄소년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스토리를 한 뒤, 이들의 성장점이 된 곡들과 멤버별 목소리 톤을 분석한다. 이어 원하는 리듬을 찾고 자칭 '아이미'인 작곡가 퍼센트가 만든 기타 리프 위에 멜로디 라인을 수차례 흥얼거린다.

재미있는 점은, 방탄소년단이나 소속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보통 작곡가는 가수의 의뢰를 받아 작업한다는 점에서 다소 엉뚱하다. '발라드 장인'이 힙합, EDM, 레게 등 트렌디한 장르를 섞는 방탄소년단의 곡을 만든다는 것도 잘 매칭되지 않는다.

그는 이 과정을 유튜브 채널 '월간 윤종신'에서 1인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송 제목은 '탈곡(曲)기'. 곡식 껍질을 벗기는 농기계 탈곡기는 요즘 세대엔 친숙하지도 않다. 낱알을 떨어내듯 '곡을 탈탈탈탈' 탄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작업실에서 만난 그는 "저도 방송에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게 되더라"고 웃었다. 그는 이 공간에서 1인 방송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1인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 방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한다. 난 그 기획의 플레이어로 나간다. 그러나 1인 방송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이 내게 특화된 걸 한다. 내가 꾸민 콘텐츠에 맞는 사람이 '구독'과 '좋아요'를 결정해 주른다. 최대한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과 1대 1로 만나 일종의 직거래다. '월간 윤종신' 채널 구독자 수가 13만 명이지만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어느 날 관심

이 없으면 구독을 취소하면 된다. 심의에서 자유로운 점도 한몫 한다.

-무작정 가수에게 줄 곡을 만든다는 아이디어 배경은.

▲ 특정 가수를 두고 프로듀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해당 가수가 꼭 부르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90% 이상 '리제트' (거절)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곡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창작자들한테서 곡이 나오는 과정이 사실 논리정연하지 않다. 어느 순간 "딱" 하고 나온다. 저는 미디 프로그램을 다루는 오퍼레이터, 연주자도 필요해 '윤종신 날로 먹네' 할 수도 있다. 하하. 대신 그 순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공상과 상상을 한다. 난 어떤 상어를 보면 뭉치를 떠올린다. 일례로 '거리에서'는 일본 가수나 카사마 마카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에게 컨택할 길이 없었다. 양파가 어렵다고 안 부르고 결국 성시경이 가져갔다. 가수에게 접근하는 작업이 재미있는데, 평소 나만의 잡다한 상상을 방송에 옮겨 놓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을 보여주는 셈이다.

-첫 프로젝트 주인공이 방탄소년단인 이유는.

▲ 의도적인 캐스팅인 걸 인정한다. 로컬이란 점을 빼면 세계적인 아이코닉 아닌 가. 한글 가사를 쓸 수 있다는 점도 좋다. 그런데 한국 가수이다 보니 미안한 측면이 있다. 에드 시런, 비온세, 브루노 마스라면 나 혼자 작업하고 마는데, 팬들이 보기엔 좋아하는 오피의 선배란 점이 신경 쓰일 것 같아 조심스럽다. 중요한 점은 '방탄소년단을 위해 작업했다' 이지, 그들이 곡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꼭 말하고 싶다. 방시혁 프로듀서에게도 전화 한 통 안 했다. 해외 스타라면 어떻게 든 전달하고자 노력할 텐데, 방탄소년단은 데모곡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보여줄 계획이다. 로컬 뮤지션이어서 좀 더 배려하는 작업이어야 할 것 같다.

-방탄소년단을 위한 곡은 어떤 스타일인가.

▲ 맞춤형도 있겠지만, 지금 방탄소년단에게 어떤 곡이 필요할까를 생각해봤다. 지금껏 그들이 쓴 스타일을 내가 만들면 의미가 없고, 나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다. 우리 또래 뮤지션이 방탄소년단과 엑소 노래를 평소 잘 몰라서 열심히 들 어봤다. 뷔는 목소리 톤이 무척 좋고, 정국은 감성적인 음색, RM과 제이홉의 랩은

가성 있다. 현재 만든 한 곡에는 랩 파트를 넣었다. 통기타로 간단히 만들었는데 '겐 찰음'이란 생각이 든다. 편곡도 해야 할 장 르는 잘 모르겠다. 가사를 쓸 때 재미있을 것 같다. 그들보다 20년 더 음악하고 대중 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다. 그룹의 보컬들을 위한 발라드도 한 곡 더 써보려 한다.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란.

▲ TV 예능에선 내 속 얘기를 잘 안 한다. 1인 방송에선 노래에 얹힐 가사를 쓰면서 가치관,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 등 내 속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 방탄소년단 가사는 '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부터 시작할 것 같다. 내가 세계적인 스타는 안 돼 봐서 다 상상할 수 없다. 무대에 서고 끝나면 집이나 호텔에 가는 생활에서 느낄 여러 감정이 나와 공감하다. 다만 내가 '버드 맨' (Birdman)이란 노래에서 대중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담았듯이,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외로움을 공감한다.

-음악적인 상상을 떠올리게 하는 해외 팝스타는 누가 있는가.

▲ 두 번째는 에드 시런이 될 것 같다. 또 빌리 조엘을 좋아하고 샘 스미스도 최근 내한 공연을 보고서 좋았다. 비온세, 브루노 마스 등 너무 많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이 댓글에서 (북한) 모란봉악단을 얘기하더라. 하하. 퍼센트 등 소속 작곡가들도 등장하고, 해외 뮤지션들의 곡을 만들 때는 배스락 작곡가와 얘기도 나눌 것이다. 내가 쓴 한글 가사를 영어로 바꿔줄 번역가도 필요하다.

-재미있게도 세계 시장 문을 두드리는 셈인데, 그들에겐 어떤 방식으로 곡을 전달 하나.

▲ 완벽한 데모가 만들어지면 내한할 때 찾아가거나, 오피셜 이메일로 보내거나, 음반유통사에 전화하는 방식 등이다. 일본 뮤지션이면 국내 관련 기획사의 도움도 얻을 생각이다. 음반유통사에 전화할 땐 방송에서 수화기음도 몰린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보이면 재미있을 것 같다./연합뉴스

kbc 개국 23년 만에 첫 드라마 제작



kbc 광주방송이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kbc 특별기획 시네마 4K 드라마' 제작 계획을 설명했다.

가족 소재 15부작 시트콤
장중훈 감독 메가폰

내년 가을 전국 민방 방영

kbc 광주방송이 개국 23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 제작을 추진한다.

kbc 광주방송은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부터 15부작 시트콤 드라마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bc 광주방송이 기획하고 KM미디어가 제작하는 이 드라마는 내년 9월 방영을 계획하고 있다. 가족을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이번 작품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과 중견 배우를 주연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이외 주·조연은 내년 1월 열리는 오디션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 위주로 캐스팅한다.

제작 과정에서 KM미디어 대표인 장중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송유진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 감독은 "그동안

안 예능과 교양을 오가며 시청자와 호흡해 온 실전 감각을 가감 없이 펼쳐내고 싶다"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밝은 분위기로 그려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kbc는 촬영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 곳곳의 영상미를 담기 위해 영화를 찍을 때 사용하는 시네마4K 촬영기법을 활용한다. 내년 가을 선보이는 이 드라마는 kbc 뿐만 아니라 CJB, G1강원민방, JIBSTV, JTV, KNN 등 전국의 지역 민방 방송 채널을 통해 함께 방영된다. 또 브라운관 외에도 IPTV(인터넷 TV)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김영락 kbc 광주방송 전무이사는 "내년 봄 광천동 신사옥 이주를 앞두고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드라마 제작을 기획했다"며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K-드라마의 위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드라마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제작 역량을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자방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 한번에 돌아보기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승타(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25 헬로키키 동물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겨울방학 특선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지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1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건축물 남도에 살아리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죽어도 좋아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승타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 미리보기 <백년손님>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재)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달칸의 매혹에 빠지다 크로아티아 4부 모든 길은 전설로 통한다>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카 폴리	21:30 한국기행
08:45 칼라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화산섬기행 4부 뽕뽕마을에 바람불면>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라라 뿌우(재)	25:0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배추만두>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0일(음 11월 14일 丙戌)

<p>子 36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다. 48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60년생 결심이 의외로 미진하겠다. 72년생 과거에 대한 경계를 되살리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84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4, 61</p>	<p>午 42년생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54년생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목표에 이른다. 66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한 요구된다. 78년생 참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90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하자. 행운의 숫자 : 28, 54</p>
<p>丑 37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9년생 이미 가닥이 잡히고 있다. 61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73년생 머지않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85년생 착수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행운의 숫자 : 92, 33</p>	<p>未 43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다. 55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책하기 힘들 것이다. 67년생 설계를 잘 해야 한다. 79년생 대세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자꾸 연기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9, 44</p>
<p>寅 38년생 지속 되어야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 50년생 판국을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이다. 62년생 포괄적인 범위의 실정이 더 실질적이나. 74년생 전체의 사국을 섭렵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86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68, 14</p>	<p>申 44년생 중차대한 판세의 마당이다. 56년생 노력에 비해 후한 대가가 따르리라. 68년생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말고 융통성을 보인다면 부가적 이익을 꾀하리라. 80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92년생 별난 것을 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92</p>
<p>卯 39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나. 51년생 추진해 보았자 주목할 정도의 실익은 없을 것이다. 63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쇠퇴하게 되리라. 75년생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87년생 망심하고 있다면 연쇄적인 현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98, 71</p>	<p>酉 45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57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년생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하느니라. 81년생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겠다. 93년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망지지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6, 57</p>
<p>辰 40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보인다. 52년생 옛 재물을 만났으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64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76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해 왔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88년생 쉽게 장담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82, 65</p>	<p>戌 34년생 선택은 신중히 하라. 46년생 차별화 시키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58년생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70년생 조용해 나간다면 완벽하게 가까운 동생이다. 82년생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다. 행운의 숫자 : 63, 35</p>
<p>巳 41년생 결말들이 보이거든 철저히 제거하라. 53년생 살피 불일이다. 65년생 머지않아서 길조가 상승할 것이니 수용할 대비를 하라. 77년생 심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89년생 한정된 조건하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느라 고민하리라. 행운의 숫자 : 56, 37</p>	<p>亥 35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47년생 누적인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 59년생 내부적인 단속과 확실한 절제가 절실하다. 71년생 상대의 제안은 받아 들이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83년생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주리라. 행운의 숫자 : 70, 91</p>